1/15/17

설교 제목: 참 하나님을 섬겨라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이사야 40장 12-31절

|  |  |
| --- | --- |
| (사 40:12) |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

|  |  |
| --- | --- |
| (사 40:13) |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

|  |  |
| --- | --- |
| (사 40:14) |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http://kcm.co.kr/bible/kor/sg.gif [욥38:4](http://kcm.co.kr/bible/kor/Job38.html#욥 38:4), [고전2:16](http://kcm.co.kr/bible/kor/1co2.html#고전 2:16) |

|  |  |
| --- | --- |
| (사 40:15) |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1)](http://kcm.co.kr/bible/kor/Isa40.html#bottom)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http://kcm.co.kr/bible/kor/sg.gif [사17:13](http://kcm.co.kr/bible/kor/Isa17.html#사 17:13) |

|  |  |
| --- | --- |
| (사 40:16) | [레바논](http://kcm.co.kr/ency/place/0245.html)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http://kcm.co.kr/bible/exo/Tent/Tent11.html#00)에도 부족할 것이라 |

|  |  |
| --- | --- |
| (사 40:17) |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http://kcm.co.kr/bible/kor/sg.gif [사29:7](http://kcm.co.kr/bible/kor/Isa29.html#사 29:7), [사30:28](http://kcm.co.kr/bible/kor/Isa30.html#사 30:28) |

|  |  |
| --- | --- |
| (사 40:18) |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

|  |  |
| --- | --- |
| (사 40:19) |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 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

|  |  |
| --- | --- |
| (사 40:20) |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http://kcm.co.kr/bible/kor/sg.gif [사44:10](http://kcm.co.kr/bible/kor/Isa44.html#사 44:10) |

|  |  |
| --- | --- |
| (사 40:21) |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

|  |  |
| --- | --- |
| (사 40:22) |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 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 같이 치셨고 |

|  |  |
| --- | --- |
| (사 40:23) |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http://kcm.co.kr/ency/names/0598b.html)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

|  |  |
| --- | --- |
| (사 40:24) |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바람에 불려 가는 초개 같도다 |

|  |  |
| --- | --- |
| (사 40:25) |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

|  |  |
| --- | --- |
| (사 40:26) |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http://kcm.co.kr/bible/kor/sg.gif [시147:4](http://kcm.co.kr/bible/kor/Psa147.html#시 147:4) |

|  |  |
| --- | --- |
| (사 40:27) |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

|  |  |
| --- | --- |
| (사 40:28) |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

|  |  |
| --- | --- |
| (사 40:29) |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

|  |  |
| --- | --- |
| (사 40:30) |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http://kcm.co.kr/bible/kor/sg.gif [렘49:26](http://kcm.co.kr/bible/kor/Jer49.html#렘 49:26), [암8:13](http://kcm.co.kr/bible/kor/Amo8.html#암 8:13) |

|  |  |
| --- | --- |
| (사 40:31) |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

1980년대 후반 쯤 MBC에서 방영된 ‘완장’이라는 드라마를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윤흥길 작가가 1983년 발표하여 현대 문학상을 수상한 장편 소설을 각색한 드라마로 정치 권력의 포력성을 고발한 풍자극입니다.

저도 이 드라마를 보았는데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땅투기로 돈 푼께나 만지게 된 졸부 최사장이 널금 저수지의 사용권을 얻어 양어장을 만들게 되자 저수지의 감시를 이곡리의 한량 임종술에게 맡깁니다.

감시원이 되어 완장을 받은 임종술은 당장 완장을 두르고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안하무인으로 군림하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머리가 잰 마을 사람들 몇 명은 갑자기 임종술에게 붙어 부역합니다.

드라마가 자체가 감동스러웠다기보다는 권력의 폭력성과 권력에 부역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구역질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박근혜 최태민 최순실 사건으로 인해 완장의 결정판을 보고 있습니다.

원칙을 존중하는 정직하고 깨끗한 이미지로 대통령이 된 독재자의 딸 박근혜는 세상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정직, 부도덕을 한꺼번에 저질러 모아 놓은 권력형 비리 백화점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거기다 무능까지 더해서 말입니다.

그 더러운 권력에 부역하여 부정직하고 부도덕하게 국민들의 피를 빨아 먹으며 호위호식하고 산 소위 엘리트라는 사람들의 비굴한 모습도 청문회를 통해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그들 모두의 결국은 감옥소일 것입니다.

이들이 세상의 권력에 부역해 축적한 부와 권력이 부럽기는 커녕 그토록 헛된 것에 미친듯이 빠져 목매달고 연연해 살면서 세상에서 단 한 번밖에 가질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자신들의 인생을 그렇게 소비해 버린 그들이 참으로 안됐고 측은해 보였습니다.

이제라도 이들이 참 권력자,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그 분을 만나 의미있는 인생을 살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  |  |
| --- | --- |
| (사 40:12) |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

누가 바다 물의 부피를 달 수 있겠는가?

누가 광대한 하늘의 크기를 재어 볼 수 있겠는가?

누가 땅의 흙을 되에 담아 달아 볼 수 있겠는가?

누가 저 높은 산들과 언덕들의 무게를 저울어 달아 볼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  |  |
| --- | --- |
| (사 40:13) |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

|  |  |
| --- | --- |
| (사 40:14) |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

하나님께서는 홀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지도하고 가르친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  |  |
| --- | --- |
| (사 44:24) | 네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시요 지극히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  |  |
| --- | --- |
| (사 40:15) |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

|  |  |
| --- | --- |
| (사 40:16) | [레바논](http://kcm.co.kr/ency/place/0245.html)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http://kcm.co.kr/bible/exo/Tent/Tent11.html#00)에도 부족할 것이라 |

|  |  |
| --- | --- |
| (사 40:17) |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

창조자 하나님 앞에 열방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악인들이 권세가 있어 보이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학대하는 이방 나라들, 곧 앗수르와 바벨론의 세력이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열방은 통의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같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없는 것같이 빈 것같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과 그 권세들을 무로 여기십니다.

|  |  |
| --- | --- |
| (단 4:35) |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 중 택한 자들을 다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뜻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과정입니다.

|  |  |
| --- | --- |
| (사 40:18) |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

|  |  |
| --- | --- |
| (사 40:19) |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 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

|  |  |
| --- | --- |
| (사 40:20) |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

놋으로 만들어 금과 은을 입혀 만들었거나 썩지 않는 나무로 만든 우상이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구나 그런 것들을 신이라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우습고도 헛된 일입니까?

세상의 권력인 인간을 숭배하고 과학을 맹신하고 돈과 육신의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행위가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우상 숭배 형태입니다.

인간 숭배 돈 숭배 권력 숭배 육신의 쾌락 추구를 버려야만 합니다.

인간이 절대적인 가치를 두려하는 그 어떤 우상도 헛되고 무익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  |  |
| --- | --- |
| (사 40:21) |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

|  |  |
| --- | --- |
| (사 40:22) |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 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 같이 치셨고 |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심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  |  |
| --- | --- |
| (사 40:23) |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http://kcm.co.kr/ency/names/0598b.html)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

|  |  |
| --- | --- |
| (사 40:24) |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바람에 불려 가는 초개 같도다 |

하나님은 귀인들을 페하시고 세상의 재판관들을 헛되게 하시는 주관적 섭리자십니다.

|  |  |
| --- | --- |
| (사 40:25) |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

|  |  |
| --- | --- |
| (사 40:26) |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그 수효대로 이끌어 내셨으며 각각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신이 어느 우상이 이런 능력을 가졌습니까?

제가 정말 좋아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  |  |
| --- | --- |
| (출 15:11) |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

우리는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오직 참 하나님 만을 섬겨야 합니다.

|  |  |
| --- | --- |
| (사 40:27) |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

여기서 ‘내 길과 내 송사’는 앗수르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함을 부르짓는 내용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하는 고난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며 구원을 갈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연한이 차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  |  |
| --- | --- |
| (사 40:28) |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

|  |  |
| --- | --- |
| (사 40:29) |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느냐고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명철과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명철과 능력으로 그 선하신 뜻을 다 이루십니다.

|  |  |
| --- | --- |
| (사 40:30) |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

|  |  |
| --- | --- |
| (사 40:31) |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

**이스라엘은 고난 중에 피곤해져 있었으며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피곤하고 낙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 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1.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창조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 즉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창조’(보레, 분사형)는 하나님이 과거에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준다.

1.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십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길(사정)이 여호와께 숨겨졌다” 또는 “내 송사(억울한 것)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사정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 심판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가 자신들로 비롯되어 야기된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더딘 것 같으나 분명히 살피시고 의롭게 판단하십니다.

(시 9:4)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시9:8)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여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1. **우리는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앙망해야 합니다.**

여기서 ‘앙망하다’(카바)는 ‘함께 묶다’ 또는 ‘연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상적인 앙망함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따르는 것이 되어야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따라 그와 같은 길을 간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진정으로 연합하지 않고는 동행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따라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게 된다.

(삼상2:30b)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그를 무시하시며,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그를 존중하신다

(잠8:17)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1.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앙망하고 그와 연합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앙망하다’(카바)는 ‘꼬아서 함께 묶다’라는 뜻에서 ‘튼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묶이면 튼튼하게 됩니다.

실이 밧줄에 함께 묶이면 튼튼해지는 것과 같다.

인생은 질그릇과 같기 때문에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으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을 참조하라(고후4:8-9).